

세계는 1990년대 중반 '정보화 혁명'에 이어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디지털 융합 혁명'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직면해 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전송망의 광대역화에 따라 전통적으로 서로 다른 영역이었던 통신과 방송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차원에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통신·방송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IPTV, DMB, 웹캐스팅, 데이터방송 등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속성을 모두 가진 서비스가 우리들의 실생활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융합현상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융합서비스 이용을 통한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통신·방송 전반의 산업구조까지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세계 주요국은 IPTV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나,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법제도 정비의 지연으로 아직 도입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PTV 도입뿐만 아니라, 디지털방송 활성화, 디지털콘텐츠 육성 등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과 규제체계를 융합환경에 맞추어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러한 과제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과 규제기구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번호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의 주요 이슈 가운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방송·통신 기구개편과 대표적인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서비스 도입정책방안 그리고 방송통신융합 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특별기고를 통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



- 1. 방송통신융합법 해설
김승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융합전략팀 행정사무관
- 2. IPTV 도입방안
김승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융합전략팀 행정사무관
- 3. 콘텐츠산업 진화와 리스트럭처링
현대원 서강대 교수
- 4. IPTV의 도입과 방송통신융합
안중배 한세대 교수

기획 | 새 전환기 맞는 방통융합

정책 · 규제기구 개편, 융합 환경에 맞게 개편 시급

